"헌혈증서 기부하면 휴게소쿠폰 드려요"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에 걸쳐 관내 2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헌혈증서 기부 참여 우대 쿠폰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사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생명나눔 헌혈뱅크 운영'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휴게소 이용고객의 자발적 헌혈증서 기부 운동인 '휴게소 헌혈증서 기부 캠페인'이 헌혈 참여인구 감소와 함께 기부 캠페인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 부족으로 기부 실적이 날로 감소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헌혈증서 기부 참여 우대 쿠폰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헌혈증서 기부 참여 우대 쿠폰제'는 헌혈증서를 기부하는 고객에게 증서 1매당 휴게소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3천원권 쿠폰을 증정하게 된다.

/광주=봉채영 기자

완도 5일시장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전남 완도 5일 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재개장했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퓨전 분식 음식점·문화예술 공산품·전복 먹거리 식당 등 점포 23곳을 갖춘 상가 (지상 1층·688㎡)를 신축했다.

상인과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막구조물(2000㎡)을 설치, 품목별 노점 90곳도 함께 조성했다.

완도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릴레이 행사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완도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선보이는 오일장 공연 마당을 오는 8월까지 이어간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 5일시장이 우리 군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군민 여러분도 한마음으로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도=이제건 기자 wando1106@

인천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요건 완화

인천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재의 쌀가격 19만 3000원 유지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신청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논에 타작물 재배 시 단위면적당 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원/ha, 두류 325만원/ha, 휴경 280만원/ha의 해당지원금을 지급한다. 2019년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올해 12월에 지급한다. 다만,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확인 후 지급하게 되며, 수급이 불안정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신청 작물에서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사업 지원의 확대를 위해 당초 사업대상 농지였던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 농지와 2018년산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대상 농지에서 2017년도가 추가 확대돼, 2017년 또는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 농지와 2017년산 또는 2018년산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농지로 개정됐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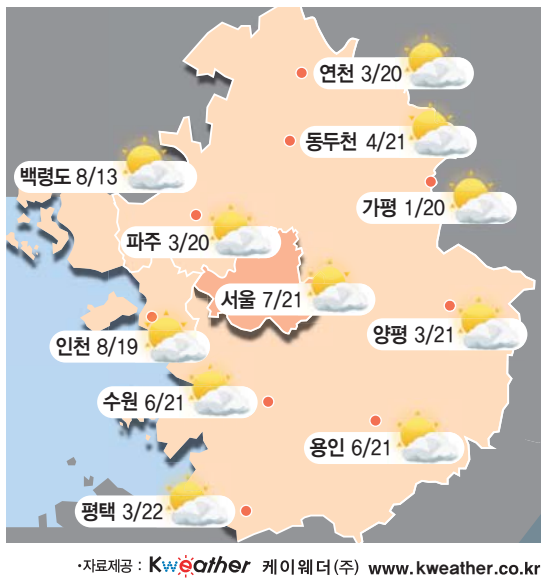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57 | 해짐 / 19:08

4월
16일 (火)
음력 : 3월 12일

수도권 날씨
7 ~ 21 ℃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장성군, 청렴문화 1번지 등극 기관·단체에 '체험교육' 인기

8년간 1270단체 7.8만명 교육
축령산·황룡강 등 관광자원 풍부
신청백리 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전라북도인재개발원 하서김인후선생 필암서원 유적지체험.

장성군이 운영하는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공직자와 정부 출자기관 등 참여기관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2011년 9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270개 기관·단체 7만8000여명이 '청렴문화 체험교육'(이하 '청렴교육')을 받기 위해 장성을 다녀갔다.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 출자기관·단체 등 참여기관도 다양하다.

장성 '청렴교육'은 아곡 박수량과 지지당 송흠 선생의 유적지와 축령산 편백숲 등 유무형 자원을 엮어 교육과 관광을 합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장성군은 두 청백리의 생애를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해석한 특강과 청렴 유적지, 곧게 뻗은 전국 최대 편백나무 숲인 축령산을 둘러보는 체험으로 구성하여 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다.

아곡 박수량 선생은 1546년(명종 원년) 청백리에 올랐던 조선시대 문신이다. 39년간 관리생활을 하며 호조판서까지 올랐지만, 임종할 때 '시호도 주청하지 말고 묘 앞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다. 아곡 선생은 장례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 나라에서 장례를 대신 치러주었는데, 명종은 박수량 선생의 청백을 알면서도 빗돌에 청백함을 새기는 것이 오히려 누가 될까 염려해 아무런 글도 새기지 않은 백비(白碑)를 세우게 했다.

장성군은 아곡 박수량 선생의 '백비'와 송흠 선생의 '관수정'(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100호)을 비롯해 호남 유일의 사액서원인 '필암서원' 등 청렴과 관련한 유구한 역사 자원과 함께 전국 최대 편백나무 인공조림지인 '축령산', 최근 가장 아름다운 꽃강으로 주목받는 '황룡강', 출렁다리로 걷는 재미까지 더한 '장성호 수변길' 등 풍부한 관광 자원도 가지고 있다

장성군은 8년간 교육을 운영하며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초반에는 청백리 관련 유적지와 축령산을 묶은 체험교육이 진행됐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조선시대 청백리의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신(新) 청백리 체험', '사가독서체험', 축령산 편백나무 숲에서 진행되는 '편백 힐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또 '청렴'을 테마로 풍부한 정보와 시각 자료를 한데 모아 '청백리 전시실'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고, 박수량 선생 묘 입구에 교육 참여기관 이름이 적힌 마크를 부착하는 '백비 전시실'을 만들어 교육생에게 자긍심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걷고 싶은 길로 선정한 '장성호 수변길'과 1백만여명이 다녀간 '장성황룡강 노란 꽃잔치'를 안내하는 등 신구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청렴교육'과 '힐링관광'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장성=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김제시, 균형발전 평가 3개분야 '우수'

성장촉진지역개발 등 3개 사업분야
모니터링·삶의질개선 등 성과 인정

박준배 김제시장

김제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성장촉진지역개발, 소하천정비 3개 사업 분야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균형발전사업 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해마다 시·도 및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김제시는 포괄보조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성장촉진지역개발, 소하천정비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이번 평가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평가계획 수립과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협력하는 추진체계 운영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주민공동체의 활력창출 및 삶의 질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배점을 받았다.

김제시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현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한울타리행복의집 조성사업 등 8개 내역사업이 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 환경 개선분야 전반에 거쳐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은 시내권과 북부지역을 연계하는 도로개선공사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편의를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역 리더와 행정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가며 만족도 높은 사업을 만들어낸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주도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봉채영 기자

내달 3일 '익산대표 가공식품 육성' 콘테스트

제1회 금상 수상작: 일반가공식품 '단호박고구마타르트'

익산시가 제2회 '익산시 대표 가공식품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5월 3일 서동공원 축제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식품산업 유통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분야는 즉석가공식품을 제외한 '일반가공식품'과 '발효식품' 2가지로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과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콘테스트는 1차 시민평가단, 2차 전문가평가단의 심사로 진행되며 각 분야별로 금·은·동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이번 달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이며 시 농식품유통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익산=봉채영 기자